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오프셋 인쇄보다는 활자(?)

활판 인쇄의 아성을 오프셋 인쇄가 뛰어 넘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1960년 1월25일자 인쇄문화시보(제112호)는 '오프셋 인쇄기의 당면 과제는?' 이라는 주제를 머리 기사를 내세우며 세계의 인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여건을 사실을 통해 게재했다.

시보에 따르면 전쟁 후 산업 전반에 대한 복구가 활성화를 띤 1958년을 기점으로 활판 인쇄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활판 인쇄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물량 확보' 라는 시장 경제 논리를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보는 스위스나 영국 등 선진국과의 인쇄 시장의 흐름을 통계치를 통해 제시하며 대량 물량생산이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소품종 다량물의 인쇄업을 대변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특히 시보는 '대기업을 필두로 한 수요의 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활판 인쇄업자들의 공급 물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을 기술하며 근대적 기업 형태로 넘어가는 사회 구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프셋 인쇄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라고 제시했다.

## 인쇄공장재활원 활판 전지기 설치

고래 싸움(정부)에 새우(인쇄업)등이 터지는 것과 같다. 1965년 1월15일자(제377호) 인쇄문화시보는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인쇄공장재활원이 활판 전지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보는 특히 활판 전지기의 설치는 설비투자액과 시설 형태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인쇄 업역의 한계를 벗어나 일반업자와 경합을 불어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한창 진행중인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상공부와 원호처의 살바싸움으로 인해 결국 포화 상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쇄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고 적절한 예문을 끌어 붙였다. 그 당시 국내 인쇄 기자재의 전체 기종 가동율은 60%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여러 차례 정부의 불합리성을 건의했다. 시보는 결국 원호처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공부와 의 횡적인 의견 조율이 타개책을 찾지 못한 것은 정부 결정에 크나큰 모순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 내외정판사 인쇄상 선정

KBS가 주최하는 '캘린더 및 미스캘린더' 선발대회에서 내외정판사(작품명 · 풍경)가 인쇄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971년 1월15일자(425호) 인쇄문화시보는 9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쇄 사진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42개단체에서

총 45개의 작품이 출품된 전시회에서 내외정판사의 '풍경'은 정교한 인쇄와 선명한 색채로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특히 시보는 '풍경'에 대해 심사 위원들의 말을 인용해 '참신한 시각이 돋보였고 해외 캘린더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 국내 캘린더 시장에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상은 대한교육보험(주)에게 돌아갔으며 미술상에는 대한보증보험, 사진상에는 동양 나이론이 선정됐다.

#### 고려제지 주인 바뀌어

1972년은 고려제지(사장 김원전)가 소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매 절차를 밟아 주인이 바뀐 해로 기록됐다. 인쇄문화시보는 1월 15일자(제448호) 보도를 통해 기업합리화위원회의 결정문을 인용, 재무부 장관 주재로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비교적 의미있게 다뤘다. 시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상정된 관리 업체는 고려제지 등을 비롯, 총 6개업체로 채산성이 맞지 않거나 경영권의 약화로 인한 부실한 기업들이 주 대상이었다.

위원회는 결국 국내 굴지의 제지 업체로 군림하고 있던 조흥은행 산하의 고려제지에 대해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지공장 등 담보물을 시가로 공매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또 담보물 처분에 있어 전 소유주의 연고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보는 보도 말미에 '고려제지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지 업체 사업주들이 심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게재했다.

#### 주춤하던 잉크 가격폭등

잠시 주춤거리던 잉크 등 수입 원료의 값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며 폭등했다.

1974년, 인쇄문화시보는 1월1일자(제490호)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시한 가액보다 최고 172%가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잉크 시장에 대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시보에 따르면 에너지 파동 및 자원난이라는 악재가 겹쳐 인쇄용 잉크값이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172%까지 오른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보는 이번 사태가 비단 작금에 일어난 현상들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출력소들은 피할 수 없는 경영난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의 말을 인용해 '안료 등의 기초 원재료 폭등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전제한 뒤 '용지난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옆친데 덮친격으로 잉크값까지 올라 공급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쇄업계는 각 조합별로 잉크값이 적정선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고려초 장경 또 발견

해인사 팔만대장경보다 1백년 이상 앞선 고려초 대장경 인쇄본한 권이 또 발견됐다. 1977년 1월15일자(제556호) 인쇄문화시보는 발견 당시의 사진과 함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성암 고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장경을 소개했다.

흔히들 '초장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1차 대장경은 고려 문종(1063)~선종(1087)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1976년 8월, 도행반약경권 4권이 발견됐을 뿐이다.

시보는 이 초장경에 대해 석가여래의 포교를 찬양한 4폭의 불화가 판각돼 있다고 전했다. 또 "산, 소나무, 바위 등의 그림 솜씨가 뛰어나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당시 우혜봉 성균관대 교수의 고증을 인용해 높이 평가했다. 이 초장경은 길이 5m, 너비는 29cm로 발견 당시 닥종이 재질의 두루마리로 싸여 있었다고 한다.

〈장홍일 기자〉